

研究論文

다산 정약용과 J. A. Schumpeter의 현실 분석과 비전의 문제*

박 홍 기**

I. 서론	V. 비전과 현실 분석의 상호관계
II. 비전의 의미와 기능	VI. 결론
III. Schumpeter의 비전과 현실 분석	<참고문헌>
IV. 정약용의 비전과 현실 분석	<국문요약>

I. 서론

일찍이 Adam Smith(1723~1790)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어떤 원리가 철학적 탐구를 촉진하는가를 묻고, 그 답을 ‘놀라움(surprise)’과 ‘당혹(wonder)’ 그리고 ‘경외(admiration)’라는 세 가지 감정에서 찾았다. 놀라움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며, 당혹은 발생한 사건이 기존의 지식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을 때 품게 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경외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뤄져 당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갖게 되는 감정이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려는 자연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향이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결국 사건 자체의 설명을 시도하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철학적 탐구 또는 과학적 탐구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된 것이다. 논문의 초고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경제학 전공(hgpark@aks.ac.kr).

의 원동력이라고 본 것이다.¹⁾ 놀라움과 당혹 그리고 경외가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적 탐구를 촉진하게 하는 기본 원리라면, 어떤 학자로 하여금 특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문제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이것을 J. A. Schumpeter(1883~1950)는 ‘비전(vision)’이라는 개념에서 찾았다.

비전은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비교적 널리 그리고 자주 쓰이고 있는 말이다.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들이 흔히 그렇듯이, 비전도 그 의미가 잘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절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Schumpeter는 비전을 모든 과학적 탐구에 없어서는 안 될 전제조건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은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다산 정약용(1762~1836)이 인간의 욕망을 모든 행위의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파악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²⁾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망은 유용한 행위, 즉 선행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유해한 행위, 즉 악행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전도 과학적 탐구를 촉진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저해하거나 왜곡시키기도 한다. 비전에 내포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이 학자들의 현실 분석을 옳지 않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전이 모든 과학적 탐구의 전제조건임과 동시에 학자들의 탐구 작업을 오토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기대하기 쉽지 않고 또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는 학자들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간직하고 있는 비전의 속성에 대해 때때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이 비전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비전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반성하기 위해서이다. Schumpeter는 학자가 지니고 있는 비전과 그가 행한 현실 분석과의 관계를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Adam Smith형으로서 비전이 분석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는 Karl Marx(1818~1883)형으로서 비전이 분석을 압도하여 분석의 내용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경우이다. 셋째는 J.

1) Adam Smith,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III, edited by W.P.D. Wightman(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33~34.

2)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망을 天理에 어긋나는 人欲이라 하여 무조건 억제하고자 한 당시의 교조적 성리학자들보다 이 점에서 다산이 훨씬 앞섰다고 할 수 있다.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 다산 철학의 근대성 탐구』(서광사, 2001), 98~100쪽.

M. Keynes(1883~1946)형으로서 비전이 위장된 상태에서 교묘하게 분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이다.³⁾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지닌 비전의 존재와 그 영향력에 관해 어떤 문제의식도 지녀 본 적이 없는 순진한 학자들을 우리가 논외로 한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학계에 Marx형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해당될 뿐 자신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분석을 객관적으로 행하는 Smith형에 속한다는 독선적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Schumpeter는 이런 경우의 대표적 학자로 Marx를 꼽았다.⁴⁾ 하지만 이런 사실을 지적한 Schumpeter 자신이 Marx 못지않게 비전에 충실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현실에 대한 분석을 왜곡한 학자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 집필의 주된 목적들 가운데 하나이다.

Schumpeter는 또한 정직하고 소박한 비전에서 비롯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어떤 학자가 지닌 비전이 정직하고 소박하면 할수록, 그는 그의 비전에 따라 선택적으로 관찰한 사물의 모습을 사물 본연의 참된 모습으로 믿어 의심치 않은 가운데 분석을 행하고, 또 그 분석의 결과에 대해 보편타당성을 주장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⁵⁾ 이렇게 되면 그는 결국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객관적인 것으로 확신하는 오류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확신의 바탕 위에서 강구된 문제해결의 방안만을 올바른 것으로 고집할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이런 예를 다산 정약용에게서 찾을 수 있다. 다산은 도탄에 빠진 사회를 구하고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Schumpeter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적 파괴’의 가능성을 장기에 걸쳐 진지하게 도구(討究)한 학자였다. 하지만 그가 지녔던 정직하고 소박한 비전의 영향 때문에 분석의 결과와 제시된 방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가 이 논문에서 다산과 Schumpeter가 이룩한 주된 학문적 업적을 비전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며, 비전이 학자들의 탐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재음미해 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비전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J. A. Schumpeter, "Science and Ideology"(1949), in J. A. Schumpeter, *Essays on Entrepreneurs, Innovations, Business Cycles,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Essays)*, edited by Richard V. Clemence(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89), pp. 279~283.

4) *Ibid.*, pp. 276, 281~282.

5)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4), pp. 42~43.

II. 비전의 의미와 기능

Schumpeter는 모든 포괄적인 이론은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 하나가 바로 이론가의 비전이며, 다른 하나는 이 비전을 개념화하고 구체적 명제나 이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론가의 기교(technique)이다.⁶⁾ 그렇다면 비전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슨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Marx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사용한 빈도 못지않게 비전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한 Schumpeter가 비전의 의미와 기능에 관해 언급한 바를 요점만 정리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Schumpeter는 모든 과학적 탐구 작업을 검증된 사실(fact)의 추적, 축적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더욱 정교한 분석 도구로서의 이론의 개발, 그리고 이 이론에 의한 새로운 사실의 발견으로 이어지는, 사실 탐색과 이론 연구의 끊임없는 순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각각의 과학자나 이론가들이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거나, 또는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의식하고 그 해결을 시도했을 경우에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정 시기에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이해하는 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에 관한 학자의 견해를 Schumpeter는 비전이라고 불렀다.⁷⁾ 학자들이 간직한 이런 견해는 과학적 분석 작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전제가 되는 애별인식 활동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는 비전을 ‘전분석적(前分析的) 인식 행위(preanalytic cognitive act)’라고 부르기도 하였다.⁸⁾ 전분석적 인식 행위로서의 비전의 형성에는 탐구의 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일련의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지각(perception), 다른 학자들의 선행 연구 결과, 그리고 어떤 주제에 관하여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체계화되지 않은 견해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⁹⁾

6) J. A. Schumpeter, "John Maynard Keynes 1883-1946"(1946), in J. C. Wood(ed.), *John Maynard Keynes: Critical Assessments*, Vol. I(London: Croom Helm, 1982), p. 56.

7) *Ibid.* p. 56.

8)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p. 41.

9) J. A. Schumpeter, "Science and Ideology," p. 277. Schumpeter는 preanalytic이라는 말과 prescientific이라는 말을 명료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아 오해의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그의 논지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preanalytic이라는 말만을 사용하였다.

Schumpeter의 비전은 Max Weber(1864~1920)가 사용한 ‘이념형(ideal type)’이라는 개념과 비교될 때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Schumpeter의 제자였던 Stolper는 Weber의 이념형과 Schumpeter의 비전을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한 뒤에, 양자가 두 가지 관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비전이 구체적으로 관찰된 현실의 추상(abstraction)인 반면, 이념형은 현실의 추상이 아니라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 사고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둘째, 따라서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해 오로지 하나의 비전이 있을 수 있는 데 비해,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다수의 이념형이 있을 수 있다.¹⁰⁾ 이런 결론은 이념형과 비전을 모두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에 대해 오로지 하나의 비전만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것은 Schumpeter의 비전만 옳고 다른 비전은 옳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비전을 지니고 경제 현실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 Schumpeter의 지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현실과 무관하게 다수의 이념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도 Weber가 무질서하게 보이는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것의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념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없다.¹¹⁾

비전과 이념형의 근본적인 차이는 다른 데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첫째, 전자가 과학적 사유의 촉진제라면 후자는 과학적 사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선행 연구자들이 행한 현실 분석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념형은 다른 학자들의 비전이 되어 새로운 과학적 탐구를 자극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전이 곧 이념형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비전은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이전에 분석 대상의 모양을 어렴풋이 보여 주는 밑그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이념형이 과학적 분석이라는 객관적으로 통제 가능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연구 결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적어도 논리상 이데올로기에 대해 중립적인 반면, 비전은 그런 검증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10) W. F. Stolper, *Joseph Alois Schumpeter: The Public Life of a Private Ma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p. 28~29.

11) 박흥기, 「J. A. Schumpeter 경제학의 과제와 성과」, 『한국의 정치와 경제』, 11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9~21쪽.

비전이 이데올로기적인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말은 비전의 내용 속에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요소들이, 혹시 있을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요소들과 구분될 수 없도록 뒤섞여 있음을 뜻한다.¹²⁾ 이것은 비전이 진리와 망상(delusion)의 화학적 결합물이라는 말과 같다. 비전에 포함되어 있는 망상은 그러한 비전을 지닌 학자의 사회적 위치, 계급의식, 세계관, 개인적 취향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과학적 분석 작업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전분석적 인식 행위인 비전에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과학적 탐구는 다소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데올로기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데올로기는 연구자로 하여금 어떤 대상을 선별하여 분석하게 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옹호하거나 비판하게 만든다. 문제는 어떤 연구자가 선호하는 대상을 분석하거나, 또는 혐오하는 대상을 분석할 때 그의 분석이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는 데 있다. 바로 여기, 즉 비전이 없으면 과학적 탐구 자체가 시작될 수 없고, 또 그와 동시에 비전은 연구자의 현실 분석을 오도하여 특수한 결론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주장케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비전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의 딜레마가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비전에 의해 촉발된 과학적 탐구의 순환과정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탐구의 출발은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단 시작된 과학적 탐구의 과정은 사실 발견과 이론 구축의 반복을 통한 끊임없는 검증 과정이다. 따라서 검증을 통과할 수 없는 이데올로기나, 그런 이데올로기 위에 성립되어 있는 비전은 점차 도태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이데올로기도 영속할 수 없는 이유이다.¹³⁾ 학문의 발전 과정이란 결국 비전에 의해 시작된 과학적 탐구의 결과로 기존의 이데올로기가 도태하고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생성되면서 검증된 새로운 사실과 더욱 정교해진 이론의 재고가 누적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 특히 학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개별 연구자들은 다소간 비전에 내포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비전이 현실

12) J. A. Schumpeter, "Science and Ideology," p. 278;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pp. 42~43.

13) J. A. Schumpeter, "Science and Ideology," pp. 285~286.

분석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Schumpeter와 다산의 경우를 예로 삼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Schumpeter의 경우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III. Schumpeter의 비전과 현실 분석

Schumpeter는 자신의 비전을 형성하고 학문적 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Marx와 Léon Walras(1834~1910)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특히 Marx로부터 받은 영향이 절대적인데, 그의 비전과 현실 분석의 궁극적 목표가 모두 Marx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Schumpeter는 Walras를 경제학의 역사상 최초로 경제적 변수들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순수논리를 정립하여 경제학이 엄격하고 정밀한 과학이 되기 위해 지향해야 할 이정표를 세운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칭송해 마지않았다.¹⁴⁾ 이런 칭송은 복잡한 현상을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식화하는 그의 능력에 대한 Schumpeter의 경외심과 높은 평가를 반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Walras는 인간의 경제생활이 본질적으로 수동적이며 단지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을 받고 적응할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발전이 없는, 유사한 규모의 경제 활동을 반복할 뿐인 정상적(定常的: stationary) 경제과정에 관한 이론, 즉 그가 최초로 정립한 일반균형에 관한 이론이 사실상 이론경제학의 전부라고 주장하였다. Schumpeter의 비전은 Walras의 이러한 주장에 내포되어 있는 오류를 발견한 데에서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내부에 스스로 균형을 파괴하는 힘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정상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외부의 충격이 없어도 경제체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힘에 의해 추진되는 발전 과정이라는 의미에서의 ‘진화의 비전’이다. 그러나 이런 비전은 이미 오래 전에 Marx가 제시한 바 있었다. Schumpeter도 이 점을 흔쾌히 인정하였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Marx의 가장 탁월한 공로는 바로 이 비전을 세운 데 있다고 지적하며, 그를 Walras 못지않

14) J. A.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ine Untersuchung über Unternehmungsgewinn, Kapital, Kredit, Zins und den Konjunkturzyklus*, 2. Auflage(Leipzig: Duncker & Humblot, 1926), p. XXII; J. A.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p. 827.

게 칭송하였다.¹⁵⁾

Schumpeter는 Walras의 정태적 일반균형이론이 간직하고 있는 정치(精緻)한 논리적 분석 구조는 높이 평가한 반면, 그의 비전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보아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Marx에 대해서는 그가 일찍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자본주의적 진화가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기초를 파괴할 것이라는 비전을 ‘심원한(profound)’ 것으로 높이 평가한 반면, 심원한 비전을 ‘부당한 추론(non sequitur)’, 즉 잘못된 이론적 기법과 결합시켜 현실을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한 점은 신랄하게 비판하였다.¹⁶⁾ 우리는 여기에서 Schumpeter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필생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Marx와 Walras의 비판적 극복, 즉 Marx가 의심의 여지없이 명료하게 제시한 ‘심원한 비전’을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에 필적하는 논리적 적확성을 지닌 ‘정당한 추론’과 결합시켜 자본주의의 장기적 발전 과정에 관한 완결된 이론적 모델, 즉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chumpeter는 Marx가 제시한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것의 진실 뒀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Marx 경제학의 토대이며 연구 추진 프로그램이기도 한 ‘경제적 진화에 관한 비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체제 내적인 논리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사회적 기초를 파괴하여 결국 붕괴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chumpeter는 오늘날 상식이 된 것과 다름없는 이러한 진리를 이미 1847년에 경제학자가 되기 이전 『공산당 선언』을 집필할 당시의 철학자였던 Marx가 확고하게 담아 제시한 비전을 ‘심원하다(profound)’고 표현해도 그것은 조금도 과장이 될 수 없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다.¹⁷⁾ Schumpeter와 Marx가 공유한 비전은 자본주의는 결국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다만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이행 원인을 Marx가 자본주의의 경제적 실패에서 찾은 반면, Schumpeter는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공에서 찾았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¹⁸⁾ 이것이 Schumpeter가 지적했던

15) J. A.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pp. XXII~XXIV.

16)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3rd ed.(1950)(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5), pp. 31~42.

17) *Ibid.*, p. 42; J. A. Schumpeter, “Science and Ideology,” p. 281.

18)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pp. 61, 162~163.

Marx의 부당한 추론과 자신이 새롭게 정립한 정당한 또는 올바른 추론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사회주의로 전환시키는 힘을 어떻게 만들어 내는가? Schumpeter가 설정한 현실 분석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으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것은 Marx가 제시한 심원한 비전의 정당성을 역사의 현실 속에서 입증할 수 있는 올바른 이론을 정립하려는 시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Schumpeter는 상호 긴밀히 연관된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 분석을 시도하였다. 경제적 삶의 수동적 적응 및 순환 과정을 다룬 ‘정태분석’이 제1단계이고, 자본주의의 능동적 발전 과정을 논한 ‘동태분석’이 제2단계이며, 자본주의의 미래를 고찰한 ‘제도분석’이 제3단계이다.

현실 분석의 제1단계인 정태분석은 본질적으로 발전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단순한 순환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충격에 대한 적응의 과정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의 영역에 속한다.¹⁹⁾ Schumpeter는 동태이론 또는 동학(Dynamik)은 경제학의 한 분야임에는 틀림없지만 발전 수준이 낮아 아직 순수한 이론경제학에 속할 수 없다고 보고, Walras의 견해에 동조하여 정태분석의 도구인 정태이론만을 순수한 이론경제학으로 간주하였다.²⁰⁾ 하지만 정태분석은 적용 가능 영역이 극단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힘에 의한 경제의 이산적(離散的)이며 질적인 변화, 즉 경제발전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태분석은 비전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

현실 분석의 제2단계는 자본주의 체제의 진화 법칙을 탐구하려는 Schumpeter 경제학의 핵심이자 백미인 동태분석이다. 한마디로 동태분석은 체제 내부에 존재하며 균형을 파괴하는 요인에 관한 탐구이다. Schumpeter의 견해에 따르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체제 내부에서 균형을 파괴하는 주체가 ‘기업가(entrepreneur)’이

19) Schumpeter는 그의 초기의 저작인 *Das Wesen und der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München und Leipzig: Duncker & Humblot, 1908)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20) J. A. Schumpeter, *Das Wesen*, pp. 119, 143.

며, 그들이 균형의 파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신결합(new combination)’ 또는 ‘혁신(innovation)’이다. 기업가들에 의한 신결합 또는 혁신의 연속적인 추진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장기에 걸쳐 지속되는 유기적 과정으로 표출되며, 이것을 Schumpeter는 자본주의의 요체로 파악하였다.²¹⁾ 사후(*ex post*)에만 이해가 가능할 뿐 사전(*ex ante*)에는 예측이 불가능한 기업가들의 혁신과 창조적 파괴에서 비롯되는 혁명적이며 이산적인 변화의 과정이 ‘발전(development)’이다.²²⁾ 하지만 혁신은 연속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뭉쳐서 수행되며, 또 공간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고르게 진행되지 않고 특정 부문과 그 인접 부문들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진행되는 혁신이 기존 균형을 파괴하며 새로운 균형을 향하여 과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동의 형태를 띠는 경제적 변동을 초래하는데 이것이 바로 경기순환이다. 경제를 균형근방으로부터 이탈시키는 힘들과 균형근방으로 이끄는 힘들의 주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경기순환은 ‘자본주의 체제(system)’의 안정성을 해치는 하지만 그것이 자본주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Schumpeter는 ‘자본주의 질서(order)’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였다.²³⁾ 다만 성공적이기는 하지만 불안정한 체제가 사회적 분위기를 해치고 제도적 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는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경제 외적인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이 현실 분석의 제3단계에서 제도분석을 행한 이유이다. 동태분석의 과정에

21) ‘창조적 파괴’는 Schumpeter가 지어낸 용어지만, 그는 창조적 파괴의 구체적 전개 과정이 이미 Marx의 『공산당 선언』 속에 감동적인 필치로 서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J. A. Schumpeter, “The Communist Manifesto in Sociology and Economics”(1949), in J. A. Schumpeter, *Essays*, pp. 302~303.

22) Schumpeter는 ‘성장(growth)’과 ‘발전’이라는 개념을 엄밀히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전자가 연속적인 적응의 과정을 뜻하는 반면, 후자는 기존의 균형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양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균형으로 대체하는 혁명적이며 이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J. A. Schumpeter,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pp. 63~64.

23) Schumpeter는 ‘체제’와 ‘질서’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체제가 경제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의미한다면, 질서는 경제는 물론 정치와 사회 등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자본주의 체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J. A. Schumpeter, “The Instability of Capitalism”(1928), in J. A. Schumpeter, *Essays*, pp. 48~49.

서 안정적이라고 판단되었던 자본주의 질서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그것이 사회주의로 대체되는 과정, 그리고 사회주의의 작동 방식에 대한 분석이 제도분석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분석은 Schumpeter가 Marx와 공유한, 그리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비전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분석이다. Schumpeter가 제도분석의 결과 도달한 결론은 그가 스스로 묻고 대답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과 답변들에 잘 요약되어 있다.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²⁴⁾

사회주의는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다.²⁵⁾

Schumpeter는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략 세 가지 변화 추세를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기업 집중에 따른 대기업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출현한 대기업들의 경영은 관료화되지 않을 수 없고, 이제까지 기업이 개개인이 담당해 왔던 혁신 기능도 그와 함께 특정 위원회나 전문가 집단의 일상적인 업무로 전환된다. 그 결과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인 기업이 개개인의 혁신 기능이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를 보호·유지하고 있는 제도적 골격이 점차 파괴된다. 왜냐하면 먼저 주식회사 형태의 대기업에 의해 시장의 독·과점화가 진전되면서 다수의 중소 상공업자, 지주, 농민 계층들이 와해되고, 다음으로 주주들의 재산은 대부분 실체가 없는 주식으로 되어 있어 사유재산의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자본주의가 육성해 온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문명은 낡은 제도와 구습을 타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본주의 질서 자체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특히 고등교육의 확대로 급증한 지식인 계층은 사회적 분란의 조성을 통하여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적대적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자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게 된다.²⁶⁾

24) "Can capitalism survive? No. I do not think it can,"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p. 61.

25) "Can socialism work? Of course it can," *Ibid.*, p. 167.

26) *Ibid.*, pp. 131~155.

자본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Schumpeter는 자본주의의 적법한 상속자로 사회주의를 지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사회주의가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실제적으로도 합리적 자원배분과 관련된 경제문제를 자본주의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그 소비재의 생산에 투입된 생산수단의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며, 생산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중앙계획당국은 경쟁 상대의 반응과 경기순환으로부터 야기되는 불확실성이 거의 완전하게 제거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²⁷⁾

지금까지 정태분석과 동태분석 그리고 제도분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Schumpeter의 현실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Schumpeter의 현실 분석은 그가 지니고 있었던 비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현실 분석을 통해 Schumpeter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Schumpeter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의 자본주의는 명목만 자본주의일 뿐 실제로는 과거의 성공을 만들어 내었던 거의 모든 기능을 상실한 채 ‘산소 텐트(oxygen tent)’ 속에서 인공적 기구들에 의지하여 목숨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으로 진단하기도 하였다.²⁸⁾ 그리고 1949년 연말에 미국경제학회에서 그가 행한 강연의 제목은 “사회주의로의 행진(the march into socialism)”이었다.²⁹⁾ 이것이 과연 그의 탁월한 동태분석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역사적 현실에 비취보았을 때 옳은 진단이며 적실한 상황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가?

같은 맥락에서 Heilbroner는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하였다. “Schumpeter는 옳았는가? 아니다. 나는 그가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³⁰⁾ Heilbroner는 Schumpeter

27) *Ibid.*, pp. 172~175, 184~186.

28) J. A. Schumpeter, “Capitalism in the Postwar World”(1943), in J. A. Schumpeter, *Essays*, pp. 182~185.

29) 이 강연의 내용은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pp. 415~425에 실려 있다.

30) “Was Schumpeter right? No. I do not think he was.” R. L. Heilbroner, “Was Schumpeter Right?”(1981), in J. C. Wood(ed.), *J. A. Schumpeter: Critical Assessments*, Vol. III(London: Routledge, 1991), p. 293.

의 제도분석이 지닌 정태적 속성, 즉 자본주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사회주의로 향하는 하나의 경로만을 유일한 것으로 제시하였고, 또 동태분석과 제도분석의 유기적 상호관계를 무시하여 자본주의가 지닌 동태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음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다.³¹⁾

관점을 조금 달리하여 Hayek는 Schumpeter가 지니고 있었던 사회주의에 관한 견해의 정태적 성격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전술 하였듯이 Schumpeter는 사회주의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이론과 실제 두 측면에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 나라의 경제문제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경제가 정태적 균형 상태에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타당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없고 또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분산되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동태적 경제 환경 속에서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Hayek는 누누이 강조하였다.³²⁾

Heilbroner와 Hayek의 견해가 옳다면, Schumpeter는 심원하다고 확신한 비전의 정당성을 자신의 현실 분석으로 입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Marx와 공유한 비전 때문에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바탕으로 한 그의 정곡을 찌른 뛰어난 동태분석을 제도분석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외견상으로만 동태적인 사실상의 정태분석으로 회귀해 버린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Schumpeter의 사후 우리가 목격한 것은 ‘사회주의로의 행진’, 즉 자본주의의 사회주의로의 전환이 아니라,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이었다. 사회주의로의 행진을 예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업가에게서 자본주의의 본질인 혁신의 기능을 제거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그가 자본주의의 활력소인 기업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는 Schumpeter를 버리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버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1) *Ibid.*, pp. 299~301.

32) F. A. Hayek,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1945), in Chiaki Nishiyama and K. R. Leube(eds.), *The Essence of Hayek*(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p. 221~224; F. A. Hayek, “Two Pages of Fiction: The Impossibility of Socialist Calculation”(1982), in *The Essence of Hayek*, pp. 58~61.

IV. 정약용의 비전과 현실 분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Schumpeter의 비전 형성과 현실 분석에 Marx가 미친 영향은 지대한데, 다산 정약용의 경우에는 주희(朱熹: 1130~1200)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만 Schumpeter의 경우 비전은 Marx의 그것과 동일하고 현실 분석만이 서로 달랐던 데 비해, 다산의 경우에는 비전과 현실 분석 모두가 주희의 그것과 판이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다산은 자신이 살았던 당시 조선의 시대 상황을 온갖 법도가 무너져 망하기 직전의 위기로 진단하였다. “그즉이 생각건대 대개 터럭 하나만큼이라도 병통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야 그칠 것이다.”³³⁾ 삼정(三政)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국력은 이미 고갈되어 기존 체제의 개혁과 이용후생 및 경제제민을 위한 새로운 대책의 강구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충신과 지사라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나라가 처해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위(無爲)의 습성에 젖어 개혁의 의지를 상실한 지식인 계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고, 행정에는 무능하지만 가림주구에는 유능한 관료와 아전들이 일상화된 당쟁의 와중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다. 이런 병폐의 사상적 근원을 다산은 조선 사회의 독점적 이데올로기였던 주자학과 주자학의 핵심인 성리학에서 찾았다. 국력의 회복과 민생의 안정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현실과 괴리된 난삽하고 공허한 성리학 속에서는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당시의 피폐한 현실을 초래하고 악화시킨 사상적 배경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³⁴⁾

주자하듯이 성리학은 삼교 통합, 즉 도교의 우주론과 불교의 형이상학 그리고 유학의 본령인 윤리학의 통합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성리학의 근본이 ‘이기론(理氣論)’이다. 이처럼 이종교배로 태어난 성리학과 이기론은 바로 그런 이유로 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첫째는 이기론의 ‘이(理)’와 ‘기(氣)’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의 해석과 두 개념의 상호 관계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는 성리학과 본원유학과의 관계, 즉 신구 두 유교의 양립 가능성

33)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경제유표 1』, 「방례초본 인」, 40쪽.

34) 한형조, 『주희에서 정약용으로: 조선 유학의 철학적 패러다임 연구』(세계사, 1996), 246쪽.

에 관한 문제이다.³⁵⁾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논쟁에서 주희와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하며 다산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알맹이 없는 고고한 마음으로 스스로 옳다고 오만을 떨고 있으니, 끝내 이들 성리학 하는 사람과는 같이 손잡고 요순과 주공(周公)·공자의 문하로 들어갈 수 없다.”³⁶⁾ 이런 결론에는 현실과 괴리되어 실증이 불가능한 이기론은 공허한 것이고, 그러한 이기론 위에 구축되어 있는 성리학은 본원유학과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순수한 공맹의 가르침인 수사학(洙泗學)이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다산의 확고한 신념이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희의 것과 다른 다산의 비전이 생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산의 사유는 이처럼 주희의 형이상학적 철학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주희는 이원론자였으나 ‘주리론(主理論)’을 선호하였다. 주리론적 이기론은 천지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고 본 보편성의 원리인 ‘이(理)’를 개별적 생성·변화의 원리인 ‘기(氣)’보다 존재와 가치의 측면에서 우선적이며 우월한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구체적 사물에 대한 실증적 탐구보다 보편적 원리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중시한다. 또한 주희는 인간과 동식물을 구분하지 않고 자연 전체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는 평등한 실재로 간주했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순수한 ‘이’를 본성으로 지니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체마다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라는 도덕적 본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타고난 기질에 따라 서로 다른 데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주자학이 ‘무위’를 강조하는 이른바 ‘정(靜)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반해 다산은 ‘기’와 ‘이’를 각각 실체와 속성으로 파악하고, 속성에 불과한 ‘이’보다 실체인 ‘기’가 존재의 형식에 앞서고 가치의 측면에서 귀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실체가 없다면 당연히 속성은 존립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기론적 관점에서는 개별적 사물에 대한 경험적·실증적 관심이 증대된다. 또한 다산은 모든 자립적인 실체를 영명성(靈明性)의 소유 여부에 따라 ‘정신적 존재’와 ‘질료적 존재’로 양분하였다.³⁷⁾ 인격적 신인 상체가 전자라면 금수와 초목은 후자이다. 이 대목에서 다산은 인간을 상체로부터 부여받은 영명한 마음이 육체와 합

35) 박흥기, 『다산 정약용과 아담 스미스』(백산서당, 2008), 93~96쪽.

3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5』, 『오학론(五學論) 1』(술, 1983), 119쪽.

37)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 다산 철학의 근대성 탐구』, 60쪽.

쳐져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특이한 존재로 파악하였다. 당연히 인간은 영성(靈性)이 결여된 금수와 초목과는 차원이 다른 우월한 존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다. 상체는 우주 만물에 생존 및 운행의 법칙을 부여한 초월적 존재이다. 사물 속에서 이 법칙을 탐구하고 발견하여 후생의 증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상체로부터 유일하게 영성을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이다. 이로써 정신적 가치를 특히 숭상한 성리학에서 천시되었던 물질은 다산의 주기론적 해석에 의해 인간의 실증적 인식과 능동적 활용의 대상으로 새롭게 부상하게 되었다.

다산은 더 나아가 성리학에 의해 형이상학화된 ‘덕(德)’의 개념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주희는 맹자를 해석하며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덕(四德)을 인간의 본성에 처음부터 내재되어 있는 ‘이’, 즉 ‘천리(天理)’로 간주하였다. 주희는 또 인간의 내부에 사덕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은 밖으로 드러난 사단(四端)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산은 주희의 이러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사덕이 아니라 사단이고, 사덕은 오로지 사회 속에서 선(善)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덕목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이런 확신은 오랜 기간에 걸친 고경(古經)의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수사(洙泗)의 구로(舊路)가 세월이 오래되어 초목이 우거져 황폐하였으나 그 입구와 착수할 곳이 오직 이 한 길에 있을 뿐이니, 어찌 감히 입술이 타고 혀가 닳도록 말씀드려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10년 동안 마음과 지혜를 다해 고경을 차례로 상고하고 참고 인증하여 털끝만한 오차와 손톱만한 의심도 없다고 본 뒤에 감히 의논을 확정된 것입니다.”³⁸⁾

이처럼 주희의 성리학을 철두철미 비판하며 다산이 추구했던 목적은 주희의 ‘정(靜)의 철학’이 초래한 무기력한 ‘무위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유위(有爲)의 패러다임’, 다시 말하여 ‘유위의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 ‘동(動)의 철학’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 데 있었다. 유위의 비전은 위기에 처한 나라의 법과 체도를 개혁하여 부국강병을 이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Schumpeter가 ‘진화의 비전’에 따라 Walras의 정태적 일반균형모델을 비판한 것과 비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화의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3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8』, 「이 여흥에게 보냄」(술, 1986), 159, 162쪽.

Schumpeter는 Marx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다산도 창조적 파괴를 고무할 유위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위의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옛 성인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주자학이라는 독점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유위의 비전의 정당성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유교의 옛 경전에 대한 학문, 즉 경학(經學)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었다. 유배 시절 초기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경학에 몰두하며 다산은 요·순·주공(周公)·공자의 다스림 속에 이미 무위가 아닌 유위의 비전이 이상적으로 구현되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삼대(三代: 하·은·주)의 세계를 유교적 유토피아로 숭상하여 마지않았다. 다산은 삼대 중에서도 특히 주(周)의 『주례(周禮)』에 제시되어 있는 문물제도를 가장 선호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것을 다시 조선의 사회 속에 재현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였다. “내가 만약 병 없이 오래 산다면 『주례』 전체에 대한 주를 내고 싶은데 아침 이슬과 같은 목숨이라 어느 때에 죽을지 알지 못하니 감히 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삼대의 다스림을 진정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 『주례』가 아니고는 착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³⁹⁾

다산은 주나라 이후 주의 문물, 즉 ‘예(禮)’가 문아(文雅)한 것과 질박(質朴)한 것의 순환을 거듭하며 후세에 전승된 것이 아니라 퇴보만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하였다. 진선진미한 주나라의 문물제도가 후대의 많은 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계속 파괴되어 왔다고 본 것이다.⁴⁰⁾ 『주례』가 아니고는 착수할 곳이 없다는 한탄도 이런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다산의 유위의 비전에는 삼대의 문물을 지극히 숭상하는 상고적(尙古的) 역사관이 내포되어 있다. 예(禮)와 넓은 의미의 도덕의 관점에서 정립된 상고사관(尙古史觀)은 결국 일종의 퇴보의 역사관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다산의 유위의 비전 속에는 퇴보의 역사관 이외에 진보의 역사관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은 인간을 상제로부터 부여받은 영성으로 자연의 법칙을 탐색하여 후생의 증진에 이용할 수 있는 특이한 존재로 인식하였다. 다산은

39)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8』, 「중씨께 답함」, 206쪽.

40) 한영우, 「茶山 丁若鏞의 歷史觀」, 한우근 외, 『丁茶山研究의 現況』(민음사, 1985), 299쪽.

이 점을 그의 「기예론」에서 좀 더 자세히 밝혔다. 하늘은 사람에게 ‘지려(智慮)’와 ‘교사(巧思)’의 능력을 주어 스스로 ‘기예(技藝)’를 습득하며 자연 속에서 생존하도록 배려했는데, 이 기예는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욱 정교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공교해진다고 주장한 것이 그것이다.⁴¹⁾ 그리고 미개했던 유구와 일본이 중국의 선진 기술을 열심히 습득하여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예의와 문물을 이뤄 과거의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풍속을 혁신시킬 수 있었다는 실례를 자신이 제시한 명제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로 제시하였다.⁴²⁾

다산이 간직했던 비전 속에는 이처럼 예의와 문물의 지속적 퇴보를 인정하는 상고사관과, 기예의 점진적 발전을 당연시하는 진보사관이 혼재되어 있다. 퇴보와 진보는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다산의 역사관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한영우 교수는 도덕적 상고주의와 기예의 진보에 대한 믿음 사이에는 통일적 역사관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며, 특히 기예의 진보에 따른 이용후생의 증진이 정치 및 사회 제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산 역사관의 약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하였다.⁴³⁾ 이에 대하여 정창렬 교수는 상고사관은 ‘이념의 세계(가치·도덕)’에 대한 사관이고 진보사관은 ‘실재의 세계(존재·사실)’에 대한 사관으로서 그 대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 모순·대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될 수도 없으며, 오히려 두 세계의 의도적 분리를 통해 실재의 세계를 독자화시켜 가는 사고가 깔려 있다고 보아 높이 평가하면서 다산의 역사관은 결국 진보사관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⁴⁴⁾

양자의 견해에는 각각 옳은 면과 옳지 않은 면이 섞여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라는 이상에 도달할 수 없다면 과연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술의 진보는 달성할 수 있으나 도덕의 퇴보는 막

41)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5』, 「기예론(技藝論) 1」, 97쪽.

4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5』, 「기예론(技藝論) 3」, 99~100쪽,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5』, 「일본론(日本論) 1, 2」, 163~165쪽.

43) 한영우, 「茶山 丁若鏞의 歷史觀」, 299~300쪽.

44) 정창렬, 「實學의 歷史觀: 李滉과 丁若鏞을 중심으로」, 강만길·정창렬(외), 『茶山의 政治經濟 思想』 (창작과비평사, 1990), 47~51쪽, 정창렬, 「實學의 世界觀과 歷史認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韓國實學思想研究 1: 哲學·歷史學篇』(해안, 2006), 343~344쪽.

을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진보를 위해 힘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다산은 「기예론」과 「일본론」에서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제시하였다. 기예가 발전하면 나라는 강해지고 백성은 부유해지며, 이어서 문물이 번성하고 예의가 숭상되어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풍속이 혁신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기예의 진보와 이용후생의 증진이 문물과 예의의 발달, 즉 정치와 사회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다산의 분석 결과를 놓고 볼 때, 기예의 진보가 정치 및 사회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영우 교수의 비판은 적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다산의 역사관이 결국 진보사관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이념의 세계와 실재의 세계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킨 결과라는 정창렬 교수의 지론도, 상고사관과 진보사관이 통일될 수 없다면 유위의 비전은 의미를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놓고 보았을 때,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다.

다산이 간직했던 유위의 비전은 이처럼 상고사관과 진보사관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다. 상고사관이 유위의 목적을 담고 있다면, 진보사관은 유위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위기 속에서도 성리학적 무위의 패러다임에 젖어 무기력하게 앉아 있지만 말고 앞선 나라의 기예를 부지런히 보고 배워, 이미 삼대에 구현된 바 있는 강하고 부유하며 도덕적인 국가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다산의 염원이 유위의 비전 속에 담겨 있는 셈이다. 이런 해석이 옳다면, 다산의 비전은 유물론적 역사 인식의 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예의 진보와 이용후생의 증진을 통해 퇴보해 왔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문물, 예의, 그리고 도덕의 회복이나 획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산의 비전은 한마디로 성리학이 아니라 고경의 참된 가르침에 따라 힘써 노력하면 유교적 유토피아를 오늘날 다시 구현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입술이 타고 혀가 닳도록 말씀드려 이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⁴⁵⁾라는 표현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다산의 비전은 자신의 진솔한 신념의 제시라는 면에서 정직하고 또 소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속에는 무엇보다 삼대의 예, 특히 진선진미하다고 본 『주례』의 구도(構圖)에 따라 나라의 법

45) 위의 각주 38 참조

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개혁의 첩경이라는 확신이 배어 있다. 다산의 비전 또는 역사관이 지닌 문제점은 외견상 양립이 어려운 두 사관의 대립이나 분열에서보다는 바로 여기, 즉 과도한 상고주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구해야 할 이념형(ideal type)으로서의 삼대의 정신뿐만 아니라 제도까지 그대로 답습하여 개혁을 달성하려는 경학 의존적이며 과거 지향적인 태도 때문에 다산은, 성리학에 대한 신랄한 비판자로서의 다산에게서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고자 하는 만큼, 현실을 엄밀하게 실증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회에서 더욱 복잡한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다산은 일본의 몇몇 유학자들이 경서와 예의에 관해 논한 글을 읽고 탄복한 나머지 문물이 이 정도로 발달한 나라는 무사(武事)에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는 염치를 알고 원대한 장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란 이유를 들어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⁴⁶⁾ 그리고 주지하듯이 19세기 초엽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정의 종합적 개혁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세유표』를 저술하며 다산은 수천 년 전의 『주례』를 기본모형으로 삼았다. 『주례』는 정전법과 도성(都城)의 건설을 포괄하는 이른바 ‘체국경야(體國經野)’라는 왕정의 기본법제와 봉건제라는 국가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들은 서로 논리 정합적인 것이었으나 당시 조선의 그것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⁴⁷⁾ 다산 스스로도 『경세유표』를 저술하기 전에는 토지 사유화의 진척 등 몇 가지 이유를 들며 정전법을 시행할 수 없는 법제로 간주했었고, 또 당시 조선의 국가체제는 군현제였다. 하지만 이상적인 왕정의 법제를 『주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 이후 그는 정전법은 성인(聖人)의 상법(常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법제라고 강조하였다.⁴⁸⁾ 『경세유표』가 미완의 상태로 남겨진 것은 이처럼 현실 상황과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상고주의적 이상에 치우쳐 개혁의 청사진을 그리려 하다가 결국 조리를 잃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4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5』, 「일본론(日本論) 1」, 162~164쪽.

47) 안병직, 「다산과 체국경야(體國經野)」, 『茶山學』 제4호(2003), 75~76쪽과 86~88쪽.

4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경세유표 II』, 7~9쪽.

V. 비전과 현실 분석의 상호관계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Schumpeter는 학자가 지니고 있는 비전과 그가 행한 현실 분석과의 관계를 세 가지 유형, 즉 Adam Smith형, Karl Marx형, 그리고 Keynes형으로 구분하였다. 학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은 Adam Smith형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전이 학자들로 하여금 특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분석하도록 고무하기는 하되,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비전이 학자를 압도하여 사실과 동떨어진 분석으로 이끄는 Karl Marx형은 최악의 경우가 아닐 수 없다. Keynes형은 중간 형태로서, 비전과 분석 결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이런 유형을 제시하며 Schumpeter는 Adam Smith형임을 자처하는 사실상의 Karl Marx형이 학계에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그렇다면 Schumpeter 자신과 다산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 학자라고 할 수 있는가?

Schumpeter는 대담하고 심원한 비전의 소유자였다. 그가 이룩한 다방면에 걸친 탁월한 학문적 업적도 자신이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비전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의 부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 동태분석을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적 성공을 확신했던 Schumpeter는 바로 그 경제적 성공이 사회의 여러 제도들을 반자본주의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제도분석을 통해 결국 자본주의는 자멸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자본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아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주의는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럴 수 있다.

Schumpeter가 평생토록 행한 현실 분석의 결과는 위에서 이미 인용한 바 있는 이 두 질문과 그 답변에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렇게 묻고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때에 한해서 그의 비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체제의 작동 방식에 대한 Schumpeter의 아전인수격 이해나 이해의 부족, 또는 오해에서 비롯된 면이 없지 않다.

자본주의가 경제적 성공 때문에 소멸하고 결국 사회주의로 이행할 것이라는 진단은 자본주의는 경제적 실패 때문에 붕괴하고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Marx의 예측과 과정만 다를 뿐 결과에서는 동일하다. 결과가 똑같은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던지 Schumpeter는 다음과 같이 부연하였다. “자본주의가 성공 때문에 쇠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 사이에는 생각처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⁴⁹⁾ 하지만 두 견해의 차이가 지닌 함의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Heilbron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기억할 만한 뛰어난 경제학자들 가운데 자본주의 체제를 경제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일단 낙관적인 결론에 도달한 이후 비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바로 그 체제에 파멸을 선고한 최초의 학자가 Schumpeter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경제발전 또는 경제력 자체는 자본주의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궁극적 결정 요소가 될 수 없음을 천명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⁵⁰⁾ 만약 자본주의 질서가 ‘경제학적 영역’과 ‘사회학적 영역’으로 철저히 양분되어 있고, 경제적 토대와 사회심리적 상부구조 사이에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면 그의 이런 견해가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이렇게 경직된 정태적 체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마도 Schumpeter 자신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에 관한 Schumpeter의 견해는 1920년대 초엽 이후 유럽에서 사회주의의 작동 및 생존 가능성을 놓고 전개되었던 이른바 ‘경제계산(economic calculation) 논쟁’에서 사회주의의 편에 섰던 학자들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⁵¹⁾ Schumpeter는 사회주의의 순수 논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사회주의는 경제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자본주의보다 우월한 경제계산 방법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Schumpeter가 말한 사회주의의 순수 논리가 신고전파 경제이론, 즉 완전경쟁하에서 주어진 생산요소의 최적 배분 문제를 다루는 정태모델인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⁵²⁾ 이 이

49) J. A. 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p. 162.

50) R. L. Heilbroner, *The Worldly Philosophers*, 5. ed.(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0), p. 314.

51) 박흥기, 「1920년대 이후의 社會主義 論爭: 經濟計算 論爭의 顛末과 意味」, 『한국의 정치와 경제』, 5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08~412쪽.

52) Rudolf Richter, “A Socialist Market Economy: Can It Work?,” *Kyklos*, Vol. 45(1992), pp. 187~188.

론은 정태분석 과정에서 Schumpeter가 정밀한 분석 구조는 높이 평가한 반면, 동태적 경제발전 현상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 바로 그 이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humpeter와 일부 학자들이 사회주의의 순수 논리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이들이 사회주의 국가의 중앙계획당국이 경쟁적 시장을 모의(simulation)한 수학적 프로그램과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계획경제를 시장경제 못지않게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허구라는 사실은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1990년대 초에 시장경제로 이행한 것이 그 나라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데에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Schumpet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동태적 현실은 정태적 경제이론으로는 올바르게 분석될 수 없다. 그의 예측처럼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로 행진을 하지 않고 역으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이행한 이유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처음부터 시장의 동태적 문제 해결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 주창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의 순수 논리에 치명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태분석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Schumpeter가 제도도 일관되게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면, 아마도 사회주의의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누구보다 먼저 이론적으로 철저히 규명한 학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 그의 비전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Schumpeter는 자신이 지녔던 비전의 정당성을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가 타계하기 직전에 행한 강연의 제목이 “사회주의로의 행진”이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그리고 그것이 비전과 현실 분석과의 관계에서 그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Karl Marx 형이었다고 우리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의 논거이기도 하다.

Schumpeter가 대담하고 심원한 비전의 소유자였다면, 다산은 정직하고 소박한 비전의 소유자였다. 다산의 비전은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염원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나라를 보면서 개혁의 의지를 상실한 채 무위와 안일의 습성에 젖어 수수방관만 일삼고 있는 지식인 계층을 일깨워 개혁을 이룩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바로 그의 ‘유위의 비전’이다. 다산은 시대적 병폐의 사상적 근원을 무위를 강조하는 형이상

학적 철학인 주희의 성리학에서 찾았고, 병폐를 치유할 구체적 방안을 유위를 일상화한 삼대의 치세와 공맹의 순수한 가르침, 즉 수사학(洙泗學)에서 찾았다. 이것이 그의 유위의 비전이 서로 모순되는 듯이 보이는 진보의 역사관(진보사관)과 퇴보의 역사관(상고사관)을 동시에 포괄하게 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다산이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성리학의 핵심인 이기론의 공소(空疎)함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사물의 중요성과 그것을 이용하여 후생의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새롭게 조명한 데에서 진보의 역사관이 자연스럽게 생성되었으며, 개혁의 모델을 오로지 삼대의 세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여긴 데에서는 퇴보의 역사관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외견상 모순 관계에 있는 듯이 보이는 두 사관이 학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고사관이 유위의 목적을, 그리고 진보사관이 유위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될 수 있음을 위에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문제는 두 사관의 대립이 아니라 다산의 과도한 상고주의에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맥락에서 다산의 역사관에 대한 한영우 교수의 비판을 재음미해 보고자 한다. 한 교수는 기예의 진보와 그로 인한 이용후생의 증진이 정치제도나 사회제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다산 역사관의 약점이자 한계라고 적시하였다. 우리는 기예의 진보와 이용후생의 증진이 문물과 예의의 발달, 즉 정치와 사회에 긍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다산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이런 비판의 적실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산의 과도한 상고주의 때문에 설명이 미흡한 데 있다고 생각된다. 한 교수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비판의 참뜻도 이런 데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예가 발전하고 기예가 발전하면 나라는 강해지고 백성은 부유해지며, 이어서 문물이 번성하고 예의가 숭상되어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풍속이 혁신되면서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유물론적 역사 인식이라고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다산의 이런 생각은 Marx의 다음과 같은 견해와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물질적 삶의 생산양식은 일반적으로 사회적·정치적 그리고 정신적 삶의 과정을 제약한다. 인간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며, 역으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⁵³⁾ Marx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사회적 관계는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력이 획득되었을 경우 그것은 생산양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생산양식의 변화는 다시 사회관계의 총체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수동식 체분소는 봉건영주의 사회를, 그리고 증기 체분소는 산업자본가의 사회를 초래한다.”⁵⁴⁾

거의 동일한 역사 인식에서 출발한 다산과 Marx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이 모두 바람직한 사회의 전형을 과거에서 찾았고, 또 그러한 사회를 재현하려는 염원을 품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러한 이상 사회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역사의 발전 과정에 대한 전망은 서로 달랐다. 요컨대 다산이 지녔던 유위의 비전 속에는 Marx와 Schumpeter가 공유했던 진화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산은 『주례』에 맞춰 법제를 재정비하고 생산력을 발전시키면 곧바로 유교적 유토피아, 즉 원시공산사회라고 할 수 있는 삼대 사회의 재현이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 반면에 Marx의 경우 공산주의 사회는 질적으로 상이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를 거치는 진화의 최종 단계에서 생산력의 발달이 극대화되었을 때 인류가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원시공산사회처럼 계급과 착취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이상적 사회이다.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Marx가 미래를 주시하고 있었다면, 다산은 과거를 회상하며 지냈다고 할 수 있다.

다산은 이처럼 원시공산사회로서의 유교적 유토피아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⁵⁾ 한국의 사회주의 지식인들이 일찍부터 다산의 사상을 ‘공상적인 공산주의적 경제이론의 맹아형태’로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⁵⁶⁾ 하지만 다산은 그의 자별한 상고주의 때문에 결국 원시공산사회에 틀에 갇혀 새로운 사회의 도래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못하였다. 그의 비전이 그의 현실 분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지만 그의 비전이 현실 분석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혐의는 조금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다산을, 굳이 Schumpeter의 도식에

53) Karl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arx Engels Werke, Band, 13, pp. 8~9.

54) Karl Marx, *Das Elend der Philosophie*, Marx Engels Werke, Band, 4, p. 130.

55) 임형택, 「茶山의 ‘民’ 主體 政治思想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湯論> <原牧>의 이해를 위하여, 강만길·정창렬(외), 『茶山의 政治經濟 思想』, 56쪽.

56)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역사비평사, 2000), 48~49쪽.

따라 분류해 본다면, Keynes형 비전의 소유자로 간주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VI. 결론

다산과 Schumpeter는 모두 연구의 범위와 깊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한 학자들이었다. 다산은 ‘우위의 비전’에 따라 당시 조선의 독점적 이데올로기였던 주희의 성리학이 초래한 무위의 패러다임을 분쇄하고 새로운 개혁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경학과 경제학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Schumpeter는 주류경제학이 정태분석에 몰두하고 있을 때 ‘진화의 비전’에 따라 동태분석의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단기적 관점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수동적 적응보다는 내생적 요인에 의한 창조적 파괴와 그에 따른 능동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자본주의의 작동원리를 파헤치며 경제학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분석의 지평을 확대한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들은 이데올로기의 폐해에 대해 누구보다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산과 Schumpeter의 현실 분석은 그들이 간직했던 비전이 내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산보다는 Schumpeter의 경우에 더욱 현저한데, Schumpeter가 범한 가장 큰 오류는 창조적 파괴를 바탕으로 한 그의 탁월한 동태적 분석방법을 제도분석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Marx로부터 빌려 온 비전의 포로가 되어 외견상으로만 동태적인 사실상의 정태분석으로 회귀해 버린 데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를 그가 혐오해 마지않았던 Marx형 비전의 소유자로 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다산도, 그의 「일본론」과 『경세유표』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옳다면, Keynes형이라는 평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산과 Schumpeter 모두 비전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했다는 결론만은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다산과 Schumpeter의 경우는 비전과 결부되어 있는 딜레마, 즉 비전이 없으면 과학적 탐구 자체가 시작될 수 없고, 또 그와 동시에 비전은 연구자의 현실 분석

을 오도하여 특수한 결론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주장케 할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난관에서 우리가 항상 자유스러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모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학자들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또는 부지불식간에 간직하고 있는 비전의 속성과, 그러한 속성이 자신에게 미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에 대해 때때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성(自省)의 자세는 치열한 이념 논쟁이 사회의 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에서 학문 활동을 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만길·정창렬(외), 『茶山의 政治經濟 思想』.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울: 역사비평사, 2000.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경세유표 I·II』.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다산시문집 5·8』. 서울: 숲, 1983·1986.
- 박흥기, 「1920년대 이후의 社會主義 論爭: 經濟計算 論爭의 顛末과 意味」. 『한국의 정치와 경제』 5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93~438쪽.
- 박흥기, 「J. A. Schumpeter 경제학의 과제와 성과」. 『한국의 정치와 경제』 11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66쪽.
- 박흥기, 『다산 정약용과 아담 스미스』. 서울: 벽산서당, 2008.
- 안병직, 「다산과 체국경야(體國經野)」. 『茶山學』 4호, 2003, 54~95쪽.
- 임형택, 「茶山의 ‘民’ 主體 政治思想의 이론적·현실적 근거: <湯論> <原牧>의 이해를 위하여」. 강만길·정창렬(외), 『茶山의 政治經濟 思想』.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52~78쪽.
- 장승구, 『정약용과 실천의 철학: 다산 철학의 근대성 탐구』. 서울: 서광사, 2001.
- 정창렬, 「實學의 歷史觀: 李漢과 丁若鏞을 중심으로」. 강만길·정창렬(외), 『茶山의 政治經濟 思想』.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0, 13~51쪽.
- 정창렬, 「實學의 世界觀과 歷史認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편), 『韓國實學思想研究 1: 哲學·歷

史學篇』. 서울: 혜안, 2006, 271~344쪽.

한영우, 「茶山 丁若鏞의 歷史觀」. 한우근(외), 『丁茶山研究의 現況』. 서울: 민음사, 1985, 295~317쪽.

한형조, 『주희에서 정약용으로: 조선 유학의 철학적 패러다임 연구』. 서울: 세계사, 1996.

Hayek, F. A., "The Use of Knowledge in Society"(1945). In Chiaki Nishiyama and K. R. Leube(eds.), *The Essence of Hayek*.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p. 211~224.

Hayek, F. A., "Two Pages of Fiction: The Impossibility of Socialist Calculation"(1982). In Chiaki Nishiyama and K. R. Leube(eds.), *The Essence of Hayek*.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4, pp. 53~61.

Heilbroner, R. L., *The Worldly Philosophers*. 5. e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0.

Heilbroner, R. L., "Was Schumpeter Right?"(1981). In J. C. Wood(ed.), *J. A. Schumpeter: Critical Assessments*, Vol. III. London: Routledge, 1991, pp. 293~304.

Marx, Karl, *Das Elend der Philosophie*(1847). Marx Engels Werke, *Band 4*, pp. 65~182.

Marx, Karl,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1859). Marx Engels Werke, *Band 13*, pp. 3~160.

Richter, Rudolf, "A Socialist Market Economy: Can It Work?." *Kyklos* Vol. 45, 1992, pp. 185~207.

Schumpeter, J. A., *Das Wesen und der Hauptinhalt der theoretischen Nationalökonomie*. München und Leipzig: Duncker & Humblot, 1908.

Schumpeter, J. A.,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Eine Untersuchung über Unternehmervergewinn, Kapital, Kredit, Zins und den Konjunkturzyklus*. 2. Auflage, Leipzig: Duncker & Humblot, 1926.

Schumpeter, J. A., "The Instability of Capitalism"(1928). In J. A. Schumpeter, *Essays on Entrepreneurs, Innovations, Business Cycles,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 edited by Richard V. Clemenc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89, pp. 47~72.

Schumpeter, J. A.,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34.

Schumpeter, J. A.,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1942). 3rd ed.(1950),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5.

Schumpeter, J. A., "Capitalism in the Postwar World"(1943). In J. A. Schumpeter, *Essays on Entrepreneurs, Innovations, Business Cycles,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 edited by Richard V. Clemenc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89, pp. 175~188.

- Schumpeter, J. A., "John Maynard Keynes 1883~1946"(1946). In J. C. Wood(ed.), *John Maynard Keynes: Critical Assessments*, Vol. I. London: Croom Helm, 1982, pp. 51~72.
- Schumpeter, J. A., "Science and Ideology"(1949). In J. A. Schumpeter, *Essays on Entrepreneurs, Innovations, Business Cycles,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Essays)*. edited by Richard V. Clemenc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89, pp. 272~286.
- Schumpeter, J. A., "The *Communist Manifesto* in Sociology and Economics"(1949). In J. A. Schumpeter, *Essays on Entrepreneurs, Innovations, Business Cycles, and the Evolution of Capitalism*. edited by Richard V. Clemenc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89, pp. 287~305.
- Schumpeter, J. 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54.
- Smith, Adam, *Essays on Philosophical Subjects*.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Vol. III. edited by W. P. D. Wightm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 Stolper, W. F., *Joseph Alois Schumpeter: The Public Life of a Private M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국문 요약

학자들로 하여금 특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또 그 문제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탐구하도록 고무하는 것이 비전이다. 따라서 비전은 모든 과학적 연구 활동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전분석적(preanalytic) 인식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비전에는 객관적 검증이 불가능한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학자들의 현실 분석을 오도하기도 한다. 여기에 비전과 결부되어 있는 딜레마가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다소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런 문제가 의외로 심각함을 보이기 위해 이데올로기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 석학들인 다산 정약용과 J. A. Schumpeter를 대상으로 한 사례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현실 분석이 그들이 지녔던 비전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을 논증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이념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학자들의 자성(自省)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 투고일 : 2009. 4. 8.

● 게재확정일 : 2009. 6. 1.

● 주제어(keyword) : 다산 정약용(Cheong Dasan), 비전(vision), 슈페터(J. A. Schumpeter), 이데올로기(ideology), 현실 분석(empirical analysis).